

複合辞「-にちがいない」의 정착에 관한 考察*

안지영**
nazue@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고전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
| 2. 조사 자료 및 고찰방법 | 3.2 신문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
| 3. 각 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 4. 마치며 |

主題語: 복합사(compound particles and auxiliary verbs), 초출(First appearance), 변천과정(process of change), 사적연구(A study of Historical Linguistics), -にちがいない (-nichigainai)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사 「-にちがいない」의 발생과 현재 의미 용법으로 사용되기까지의 정착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복합사란 몇 개의 단어가 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辭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推量·推測·推定の 의미를 나타내는 「-にちがいない」는 마쓰키 마사에(松木正恵, 1990)의 복합사 성립의 세 가지 조건2)에 따르면 「第2·3種複合辞」에 해당하며, 助動詞性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KRF-2007-362-A00019)

** 高麗大學 日本研究CENERT HK研究教授

1) 松木正恵(1990)「複合辞の認定基準 尺度設定の試み」『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センター紀要』2, p.27

2) 前掲論文1), pp.34-35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第1種複合辞の認定基準> 次のⅠ·Ⅱの条件を満たしたものを第1種複合辞と認める。

Ⅰ 形式的にも意味的にも辭的な機能を果たしていること。

Ⅱ 形式全体として、個々の構成要素の合計以上の独自の意味が生じていること。

<第2·3種複合辞の認定基準> 次のⅠ'·Ⅱ'·Ⅲ'の条件をすべて満たしたものを、第2種または第3種複合辞と認める。

Ⅰ' 形式的にも意味的にも辭的な機能を果たしていること。

Ⅱ' 中心となる「詞」は實質の意味が薄れ、形式的關係構成的に機能していること。

Ⅲ' Ⅱ'の語に他の辭的な要素等が結合して一形式を構成する場合、その要素の持つ意味がⅡ'の語に単に付加されたものではなく、形式全体として独自の意味が生じていること。

複合辭)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にちがいな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현대어 모달리티적 특징에 관한 것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複合辭로서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노다 히사시(野田尚史, 1984)⁴⁾와 다나카 히로시(田中寛, 2010)⁵⁾가 있다.

노다는 직관적인 추량이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진실일 가능성을 진술하는 「-にちがいない / ~かもしれない / ~はずだ」를 용례를 제시하며 활용, 접속, 의미·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표현과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복합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중 「-にちがいない」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화자가 그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어떠한 가정조건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량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는 점과, 「確かに」「きっと」「おそらく」등의 부사와 공기하기 쉬우며,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추측한 것을 독백하는 경향이 강하며, 회화문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관련표현인 「-に相違ない」는 「-にちがいない」와 거의 같은 의미·용법으로 사용되나 주로 글말에서만 사용되며 다소 고풍스러운 느낌의 표현으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に間違いない」도 「-にちがいな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명사에 밖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にきまっている」는 「-にちがいない」보다 확신의 정도가 높으며 회화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상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반해 다나카는 기존의 연구들이 「-にちがいない / ~かもしれない / ~はずだ」등과 같은 한정된 비교 고찰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 외의 형식과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신문 사설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와 「-はまちがいない」표현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にちがいない」는 주관적인 믿음이 배경이 되는 것에 비해 「-はまちがいない」는 객관적인 판단, 사회 통념적 배경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차이를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にちがいない」에 대한 복합사적 관점의 연구 또한

3) 前掲論文1), pp.46-49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複合辭는 의미에 따라 크게 助詞性 複合辭와 助動詞性 複合辭로 나눌 수 있다. 助詞性 複合辭는 형식 전체가 하나의 助詞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格助詞性 複合辭, 係助詞性 複合辭, 副助詞性 複合辭, 接續助詞性 複合辭, 並列助詞性 複合辭, 終助詞性 複合辭가 있다. 마찬가지로 助動詞性 複合辭란 전체가 하나의 助動詞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野田尚史(1984)「-にちがいない / ~かもしれない / ~はずだ」『日本語学』10月号 特集 複合辭 明治書院, pp.111-119

5) 田中寛(2010)「確信と確実性判断の交渉-「にちがいない」と「はまちがいない」を中心に」『複合辭からみた日本語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 pp.327-344

현대어에 치우쳐 있으며, 이에 반해 사적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복합사는 근대어적 표현의 하나로 발달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근대어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합사 연구가 현대어에만 편중되어 있을 뿐이며, 사적연구 또한 단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にちがいない」의 발생 및 그 변화 양상과 정착과정을 시야에 넣어 통시적 관점에서 논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にちがいない」와 의미상 유사한 표현인 「-はまちがいない」등과의 관련성 및 「-にちがいない」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 「ちがう」와의 의미적 연관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 정착과정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본 연구는 현재까지 그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にちがいない」의 발생과 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그 전체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고전텍스트와 근대시기부터 현대까지 발간되고 있는 신문자료를 조사 자료로 선택하였다.

고전 텍스트의 경우,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조사를 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신문 사설에 나타난 표현에 관한 고찰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바, 1874년 1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나타난 표현들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中古資料⁶⁾

- (1)竹取物語 (2)伊勢物語 (3)土左日記 (4)大和物語 (5)宇津保物語 (6)蜻蛉日記(7)落窪物語 (8)源氏物語 (9)枕草子 (10)紫式部日記 (11)和泉式部日記 (12)堤中納言物語 (13)更級日記 (14)大鏡 (15)今昔物語集 (16)平中物語 (17)夜の寢覚 (18)狭衣物語 (19)榮花物語 (20)住吉物語 (21)将門記 (22)陸奥話記 (23)浜松中納言物語 (24)とりかへばや物語

[2]中世資料

- (25)方丈記 (26)平家物語 (27)宇治拾遺物語 (28)保元物語 (29)徒然草 (30)平治物語 (31)曾我物語 (32)無名草子 (33)閑吟集 (34)新古今和歌集 (35)とはずがたり (36)十訓抄 (37)沙石集 (38)太平記 (39)狂言集 (40)謡曲集 (41)義経記 (42)室町物語 (43)松浦宮物語

6) [1]-[3]의 자료는 小學館 (1997-2002)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를 底本으로 하였다.

[3]近世資料

(44)反名草子 (45)浮世草子 (46)井原西鶴集 (47)近松門左衛門集 (48)浄瑠璃集 (49)西山物語 (50)雨月物語 (51)春雨物語 (52)黄表紙 (53)洒落本 (54)滑稽本 (55)人情本 (56)東海道中膝栗毛

[4]読売新聞⁷⁾

이상의 자료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전 텍스트와 신문텍스트의「-にちがいない」 및 의미상 이와 유사한 표현인 「はまちがいない」를 포함하여 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또한 「-にちがいない」는 동사「ちがう」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이므로, 동사 자체의 의미와 복합사로서의 의미상 관련성에도 착목하여 비교·고찰하는 등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にちがいない」의 형태가 언제부터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初出 시기를 밝혀내어 그 발생과 정착 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각 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여기에서는 고전텍스트와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자료별로 나누어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1 고전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にちがいない」를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사違う의 連用形の 名詞化+ない」가 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임이 틀림없다/반드시-하게 마련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문헌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管見에 의하면 발표된 적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 상기에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にちがいない」의 初出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는 時代世話物로 알려져 있는 人形浄瑠璃『고타이헤이키시로이시마나시(碁太平記白石噺)』에서 그 용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고타이헤이키시로이시마나시(碁太平記白石噺)』는 1780년(安永9年) 1월 2일, 江戸外記座에서 初演된 작품으로, 기노조 타로(紀上太郎), 우테 엔마(烏亭焉

7) 「読売新聞」데이터 베이스인 「ヨミダス歴史館」을 이용하여 해당 표현을 추출하였다.

馬), 요 요타이(容楊黨)가 1651년 일어난 유이 쇼세쓰(由井正雪) 사건과 1721년 16세와 13세 자매가 아버지의 적인 다나베 시마(田辺志摩)라는 무사에게 복수한 사건을 각색하여 만든 작품이다.

본 조사에서 추출된 「-にちがいない」의 初出인 용례문(1)은 자신의 부하에게 남동생의 죽음에 관하여 듣고 슬퍼하며 이야기하는 台七의 회화문에서 나오는 대사로, 남성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장 안의 「に疑ひない」도 「-にちがいな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コレ見よ庄屋百姓ども。身が第一昨夜より行方知らず。しかるに今聞く通り。殺されたるも隣村。これを思へば。人をあやめるあふれ者。この近辺を俳諧するに疑ひない。すりや与茂作を殺したも。大方同じ奴と思はるゝ。見れば数か所の刀疵。百姓づれが手際でない。浪人者など尾羽打ち枯らし。暴れ歩行くに違ひない。何と与茂作は身が殺さぬといふ事。サ、これで疑ひ晴れたか」と⁸⁾ (碁太平記白石噺 518)

다음으로는 全 4編으로 구성되어 있는 닌조본(人情本) 『하루쓰게도리(春告鳥)』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1836-37년 작품으로, 지문이 아닌 여성들의 대화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トいふうちにもうれしきかなしき、むねもどきどきしてある
小浜 「実はお前さんがお民さんに違ひなひかどふだかお聞申せと、若旦那に一 昨日私が被言付ました」
お花 「ヲヤ何様してエ」 (春告鳥 540)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にちがいない」의 의미 용법에 관한 고찰 중, 『日本語文型辞典』⁹⁾에 따르면 「-にちがいない」의 경우 회화문보다는 문장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8) 용례문의 하선은 필자에 의함. 출처 번호는 저본의 페이지를 의미함.
9)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p.220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あんなすばらしい車に乗っているのだから、田村さんは金持ちにちがいない。
(2) あそこにかかっている絵は素晴らしい。値段も高いにちがいない。
(3) 学生のゆううつそうな様子からすると、試験はむずかしかったにちがいない。
(4) あの人の幸せそうな顔をごらんなさい。きっといい知らせだったにちがいません。
(5) あの人は規則をわざと破るような人ではない。きっと知らなかったにちがいない。
(6) A:この足跡は? B:あの男のものだ。犯人はあいつに違ひない。

있다고 하나, 추출 용례가 회화문에서만 보이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당시 「-にちがひない」는 회화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음을 시사한다.

본 조사에서 「-にちがひない」형태로 추출된 것은 이상의 2용례였으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にちがひはない」가 근세시기부터 눈에 띄게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용례는 다음과 같다.

- (3) 「エ、この苧環の糸めがきれくさつたばつかりで、道からとんと見失うた。さりながら、こゝより外に家はなし。大方この内へはひつたに違ひはない。エ、誰ぞ来よかし。」
(妹背山婦女庭訓 441)
- (4) 小まん心も暗闇にて、「人の沙汰に違ひはない。世につれるとはいひながら、さもしい心にならんした。古はお歴々、私ら風情は下種にもお使ひなされまい。」
(丹波与作待夜のこむろぶし 364)
- (5) さあらめ顔にて懐中し「これ小春。さいぜんは侍冥利。今は粉屋の孫右衛門。商ひ冥利。女房限つてこの文見せず、我一人披見して。起請ともに火に入るゝ。誓文に違ひはない。」
(心中天の網島 402)
- (6) 所で「それでも泉目吉とかの人形を二ツ持て来なまして、一ツ能兒の方をば私に見付らねへ様に隠して置なましたヨ。あれをばたしかに帰んなます節、何所かかわひがる所へ持てお出なんすに違ひはありませんヨ」
吉「イヤ小僧が珍しい勸線を言出したはへ。しかしよく気が付た。」
(春告鳥 525)
- (7) 弥次「コレコレひよんなことがある。此町内の作法で、店借のものが姫をとると、家主五人組が来て其姫の尻をさすつてみるが定方。今そなたの来たことを、どふしてしつてやら、それでさすりに来おつたに違ひはない。そなたは懐妊のよし。おなじくは、まだ今宵は来ませぬといつて、見せたくねへが、どふであろう」
(東海道中膝栗毛 34)

이상의 용례문(3)-(7)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용례가 회화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00년 초기의 작품에서 1800년까지의 작품의 회화문에서 그 용례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하루쓰게도리(春告鳥)』에서는 용례문(2)와 용례문(6)과 같이 「-にちがひない」와 「-にちがひはない」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예도 확인되었으나, 「-にちがひはない」의 사용빈도가

何らかの根拠にもとづいて、話し手が強く確信していることを表す。「だろう」に比べて話し手がもっと確信の度合い、思い込みの度合いが高い。書き言葉ではよく使うが、日常会話では、大きさに響く傾向があり、(6)のような特殊の 状況以外では、「きっと…と思います」などの表現を用いる。

「-にちがいな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에는 「-にちがいない」보다는 「-にちがいはない」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にちがいな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되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にちがいない」는 「+동사違う의 連用形の 名詞化+な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사이다. 형태상으로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ちがう」¹⁰⁾가 사용되고 있는데, 동사「ちがう」에 관한 통시적 고찰에 있어서 「たがう」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ちがう」와 「たがう」는 공통적으로 「違(違ふ)」로 표기하며, 四段動詞로 활용하여 自動詞로, 下二段動詞로 활용하여 他動詞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현대 일본어 동사「違(違ふ)」와 그것이 포함된 표현의 고찰을 위해서 「ちがう」와 「たがう」에 관한 고찰을 통해 「-にちがいない」의 정착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ちがう」의 경우, 선행연구¹¹⁾에 따르면 中古時代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용례문(8)과 같이 複合動詞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용례문(9)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10)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어 동사「ちがう」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pp.699-700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여 「ちがう」가 포함된 문형과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①「AトBト違(違ふ)/AトBトハ…ガ違(違ふ)」

A・B를 同列로 취급하여 兩者를 어떤 면에서 比較하여 상호에 차이가 있으며 一致하지 않는다고 判斷한다. 比較・對照의 行爲에서, 相互로 상대를 基準으로 한다. 「異なる」와 置換도 可能하다. 本來 다른 A・B가 話題가 된 상황에서의 狀態가 一致한다면, 「同じだ/等しい」의 의미이며, ①과 對義關係가 된다. 「同じだ/等しい」는 「同一物」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 한정하여 말하면 일치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

②「AトBト違(違ふ)」

B를 基準으로 놓고 A를 관찰하여 차이가 있다고 判斷한다. 「AトBトデハナイ」와 치환 可能하기도 함. 「異なる/相違する」와도 가능. A가 기준이 되는 B와 완전히 일치하면 「同じだ/等しい」의 의미가 된다. 이 경우의 「同じだ/等しい」는 ①과 다르게 等値等價를 의미한다. 「AトBトダ」의 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同一物, 同一人物인 경우도 있다.

③「Aガ違(違ふ)」

특히 基準이 되는 B를 他者에게 요구하지 않음. A의 既定의 事實, A가 本來 가지고 있어야 할 狀態가 基準으로, 그것과 現實의 A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判斷하는 意識이 담겨있다. A의 本來 가지고 있어야 할 상태가 個人的인 認識이 아니라, 그 社會一般의 通念이나 常識, 習慣의 事實, 혹은 眞理, 學問의 眞理를 갖는 解答 等인 경우,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현실 A가 일치하는가 여부를 判斷하면, 「違(違ふ)」는 「正しくない/間違いだ/誤りだ」의 의미가 된다. 正,不正의 判斷이 되므로, 基準과 一致하는 상태는 形容詞 「正しい」가 된다. ③의 「違(違ふ)」는 「正しい/違(違ふ)」의 對立關係에 있다. 形容詞와 對應하는 것은, 그 만큼 상태성이 강한 동사라는 것으로 動作性은 「間違える/誤る」등에 의해 대응된다.

11) 佐藤宣男(1983)『講座日本語の語彙10』明治書院, pp.360-365, 山口明徳他『日本語文法大辞典』明治書院, p.433, pp.463-464

(8) 水鳥どもの番を離れず遊びつつ、細かき枝どもをくひて、飛びちがふ。(源氏物語 胡蝶)

(9) 男の寄り来るに、上のちがひておはしましける、と思ひよるに、(夜の寢覚 三)

동사의 활용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四段動詞의 「ちがう」는 용례문(10)과 같이 두 가지 사물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서로 교차하여 지나치거나 만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下二段動詞의 「ちがう」는 용례문(11)과 같이 어긋나게 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10) 木曾にちがはむと、丹波路にかかつて播磨国へ下る。(平家物語 室山)

(11) しばしば夢のさとしありければ、「違ふるわざもがな」とて(蜻蛉日記 上)

한편, 가미쿠라 시대 이후가 되면, 「ちがう」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아지게 된다. 이후 下二段活用の 「ちがう」는 四段活用に 비해 그 사용례가 적어지며, 현대 일본어의 「まちがえる」「みちがえる」등의 복합어로 밖에 사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四段活用の 自動詞 「たがう」는 용례(12)(13)와 같이 상대시대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과 일치하지 않고 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12) 駿河の海磯辺に生ふる浜つづら汝を頼み母にたがひぬ (万葉集 十四 三三五九)

(13) 遅速も汝をこそ待ため向つ嶺の椎の小枝の逢ひはたがはじ (万葉集 十四 三四九三)

中古以後에는 「たがう」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사토(1983)가 언급하였듯이 근세 초기의 작품 『きのふはけふのものがたり』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며 「ちがう」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당시 「たがう」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후 「たがう」를 대신하여 「ちがう」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아지게 되고, 현재의 용법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동사 「ちがう」와 「たが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にちがいない」에 포함된 동사는 四段活用の 동사가 변하여 현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다음의 용례문(14)는 형태상으로는 「にちがいない」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미상으로 유사한 「にたがはぬ」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蜻蛉日記』의 성립 시기가 975年前後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たがふ」는 조사「に」와 호응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이것이 동사「ちがふ」에 영향을 끼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 (14) 今日までおとなき人も、思ひしにたがはぬこちするを、今日より四日、かの物忌にやあらむと思ふにぞ、すこしのどめたる。(蜻蛉日記 277)

이 외에도 「-にちがいない」의 전신이라도 할 수 있는 「-にたがふことなし」「-にたがはず」 등의 형태로 유사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들도 추출되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5) 日のたくるままに、御色の日ごろよりも白くはれさせたまへる御顔の清らかにて、御鬢のあたりなど、御けづりぐしたらんやうに見えて、ただ、大殿ごもりたるやうにたがふことなし。(讃岐典侍日記 419)

- (16) 今なむ、ひとへに後の世のこと思ふと、よろこび給ひしにたがはず、いと尊くいみじき御ことにはべりしを、ただし、かへすがへす見給ふるに、またならびなくかしこくおはしぬべきを、二十がうちに世を知らせ給はば、わが見やられ給ふべき宿世のおはするなむ、いと恐ろしうはべるべき。(浜松中納言物語 330)

또한 본 조사에서 형태적으로 「-にたがふ」가 아닌 「-にちがふ」로 나타나는 첫 예문은 앞서 제시한 용례문(10)의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 추출된 것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의상으로는 「-にちがいない」가 아니라 「お互いに行きはずれる/行き違いになる」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상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にちがいない」의 정착과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にちがいない」는 일찍이 「-にたがはぬ」「-にたがふことなし」「-にたがはず」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1780년경이 되면 「-にちがいない」의 형태의 예문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 신문자료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의 실태

다음으로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にちがいな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로는 1874년부터 1989년까지의 「요미우리(読売)신문」로, 거기에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용례문을 추출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다음의 <표 1>은 「-にちがいない」 및 유사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にちがいない」 및 유사의미 표현의 실태

	「-にちがいない」	「-はまちがいない」	「-にたがわぬ」
1875年		1	
1876年	1	2	
1877年	1		
1882年	1		
1884年		1	
1885年		1	
1890年	1		
1893年	1		
1901年			
1903年	1	1	
1908年	1		
1916年			
1920年			
1921年	1		
1922年		1	
1923年			
1924年		1	
1925年		1	
1926年			
1927年			
1930年			1
1931年		1	
1932年		1	
1933年			1
1934年		2	1
1940年			1
1947年		1	
1952年		1	
1954年	1		
1956年		1	
1959年	1	1	

1960年	1		
1963年		1	
1964年		2	
1967年		1	
1968年		1	
1969年		1	
1970年		1	1
1971年		2	1
1972年		1	
1973年		1	
1975年			
1976年	2	1	
1977年	1	1	1
1979年			
1980年	1	2	
1981年		1	
1986年			
합계	15	33	7

우선 「-にちがいない」의 용례문을 살펴보면, 총 15용례가 보인다. 3.1에서 살펴 본 「-にちがいない」의 용례문과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にちがいない」는 직관적인 믿음에 따른 추량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당시에도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추측이 아니라 비교적 주관적 상황의 판단에 따른 추측 시에 사용되고 있는 용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2月23日のオイが不人情との記事は誤り 恨み持つ者の投書に違いない。(1876年3月5日)
- (18) 女房の寝言を聞き、間男がいるに違いないと離縁した粗忽の亭主。(1877年6月28日)
- (19) 古道具屋で神体像見つけた夫婦、三宝荒神に違いないと神棚に安置。(1882年9月29日)
- (20) 大浦の売春婦が懐妊 犬の子に違いないと口さがないうわさ。(1893年2月25日)

이에 반하여 총 33용례가 수집된 「-はまちがいない」는 「-にちがいない」의 용례에 비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 용례문(21)-(24)를 통해서도 이것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 (21) 千葉県松戸辺りの早稲はもう実入り 豊作は間違いないという。 (1876年8月21日)
 (22) フランスの台湾西海岸封鎖は間違いない(清仏戦争)。 (1884年10月29日)
 (23) 露国の軍人中に日本討伐を理想とする者が多いのは間違いない。 (1903年9月2日)
 (24) 清浦内閣の辞職はまちがいない。早ければ六日、おそくとも十日 (1924年5月31日)

그리고 용례문 (25)(26)과 같이 가정표현들과의 호응관계를 보이는 용례들이 193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용례문(27)과 (28)과 같이 공통적으로 「こ」격을 취하여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にまちがいない」와 「-にちがいない」의 예문도 추출되었다. 이것은 확신도에 따른 뉘앙스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5) 切花 これだけ心得た上買えば間違いない。 (1934年7月3日)
 (26) レースカーテンのお洗濯 こうすれば間違いない。 (1934年8月10日)
 (27) “息子に間違いない” ピッケル、写真とびたり 30年前の遭難遺体。 (1973年5月18日)
 (28) あっ妹に違いない 中国孤児公開調査 東京の肉親名乗り。 (1977年10月13日)

앞서 고찰한 「-にたがわぬ」라는 표현이 본 조사에서 총 7용례가 보이는데, 예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며 사용되고 있다. 모두 어떤 사물에 대한 묘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30년경부터 그 용례가 보이기 시작하며, 이전에 용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29) 古い日本髪を新しく 名にたがわぬ粋な美 (1930年9月9日)
 (30) 光りに新時代 真昼と寸分たがわぬ「蛍光放電灯」まず千古の名画照す (1940年8月13日)
 (31) 期待にたがわぬ「風の中の女」 (1971年2月19日)

이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와 「-はまちがいない」에 관하여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두 표현은 각각의 문형에서 호응하고 조사 「こ」와 「は」에 따른 성질에 기인하여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はまちがいない」는 조사 「は」와 함께 쓰여 주어진 상황의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여 판단을 표명하는 것에 반해, 「-にちがいない」의 경우는 개별 사항에 관하여 직감에 의존한 판단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こ」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신문에서는 「-にちがいない」보다 「-はまちがいない」가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는 이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지금까지 「-にちがいない」를 중심으로 유사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도 포함하여 고전작품과 근대시기의 신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고찰을 통해 얻은 특징적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にちがいない」의 初出用例는 1780년 初演된 人形浄瑠璃『고타이헤이키시로이시바나시(碁太平記白石噺)』에서 추출된 용례로, 회화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 ② 「-にちがいない」의 형태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にたがはぬ」「-にたがふことなし」「-にたがはず」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1780년경 이후가 되면 「-にちがいない」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 ③ 「-にちがいはない」가 사용되던 시기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にちがいはない」 표현의 빈도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당시에는 「-にちがいない」보다 「-にちがいはない」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④ 현대 일본어에서 「-にちがいない」는 회화문보다는 문장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전 텍스트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 및 「-にちがいはない」는 추출된 용례문 대부분이 회화체문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にちがいない」가 회화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⑤ 신문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에 관하여 살펴보면, 「-にちがいない」는 개별 사항에 관하여 직감에 의존한 판단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반면, 「-はまちがいない」는 주어진 상황의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여 판단을 표명하는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본 조사를 통해 얻은 간단히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사 「-にちがいない」의 대략적인 전체상과 출현 및 정착과정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금후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표현인 「かもしれない」「はずだ」「相違ない」등의 출현시기와 정착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하여 추량을 나타내는 복합사들의 전체상을 밝히고자 한다.

【参考文献】

-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佐藤宣男(1983)『講座日本語の語彙10』明治書院
田中寛(2010)「確信と確実性判断の交渉-「にちがいない」と「はまちがいない」を中心に」『複合辞からみた日本語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
松木正恵(1990)「複合辞の認定基準 尺度設定の試み」『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センター紀要』2
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野田尚史(1984)「~にちがいない/~かもしれない/~はずだ」『日本語学』10月号 特集 複合辞 明治書院
山口明穂他『日本語文法大辞典』明治書院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複合辞「-にちがいない」의 정착에 관한 考察

본 논문은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사「-にちがいない」의 발생과 현재 의미 용법으로 사용되기까지의 정착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조사 결과, 「-にちがいない」의 初出用例은 1780년 初演된 人形浄瑠璃『고타이헤이키시로이시바나시(基太平記白石浄瑠璃)』에서 추출된 용례문으로, 회화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にちがいない」의 형태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にたがはぬ」「-にたがふことなし」「-にたがはず」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1780년경 이후가 되면 「-にちがいない」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にちがいはない」가 사용되던 시기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にちがいはない」 표현의 빈도수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당시에는「-にちがいない」보다 「-にちがいはない」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대 일본어에 있어 「-にちがいない」는 회화문보다는 문장문에서 주로 사용되나, 고전 텍스트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 및 「-にちがいはない」는 추출된 용례문 대부분이 회화체문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にちがいない」가 회화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문에 나타난 「-にちがいない」에 관하여 살펴보면, 「-にちがいない」는 개별 사항에 관하여 직감에 의존한 판단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반면, 「-はまちがいない」는 주어진 상황의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여 판단을 표명하는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origin and process of compound auxiliary verb ‘-nichigain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process of compound auxiliary verb ‘-nichigainai.’ As a result of examining recorded Japanese literature, I found that ‘-nichigainai’ first appeared in “Gotaiheikisiraibanasi” published in 1780. The form of the compound auxiliary verb ‘-nichigainai’ was transformed over time from ‘-nitagahanu,’ ‘-nitagahukotonasi’ and ‘-nitagahazu.’ ‘-nichihanai’ was widely used than ‘-nichigainai’ during the Edo period. Also, ‘-nichigainai’ was often used in Japanese classical texts as a spoken language unlike contemporary Japanese language. Moreover, ‘-nichigainai and ‘-hamachigainai’ appeared in newspapers from 1874 to 1989. During this period, ‘-nichigainai’ was commonly used as a subjective expression, while ‘-hamachigainai’ was mainly used as an objective expression.